

2017 년 5 월일 “가족(1) 서로의 결박을 풀어주세요”(사 58:6-9a)

<도입>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시며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사랑의 원리에 의하여 지어졌고 그들은 사랑의 관계속에서 교류하고 통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바르게 믿고 알아가는 경험이 없으면 도달하는 결과는 모든 관계는 막히고 서로를 결박에 묶게 됩니다.

본문 사 58 장은 바벨론 포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리는 가정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키 워드는 가정 안에서 결박 풀기입니다.

[1] 흉악의 결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은 중요한 삶의 행위였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고 육신의 힘을 뺌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함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고백의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런데 금식의 의미가 왜곡되어서 4 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식 투쟁과 흡사합니다. 따라서 이런 금식은 “너희의 목소리를(소원을)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4 절후).

6 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가족)의 압제, 억눌림, 컨트롤로부터 풀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누구나 가족 안에서 식구가 잘 되기를 절실히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관계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은 서로 결박하고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예: 마마보이 – 엄마가 아들을 결박하는 경우

아빠의 도박 중독 – 가족을 불안과 열등감에 결박

부부싸움 – 아이들을 공포와 죄책감에 결박. 서로에게 날카로워지고 부자유와 소통 결핍에 결박

[2] 결박을 풀다!

가족을 옳아맨 결박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먼저 상대가 불쌍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사는 것이 미안해서 입니다. 나 같은 배우자, 나 같은 부모, 나 같은 형 동생과 함께 살아야 하니 상대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 내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부부간에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정한 능력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학권 목사 설교에서)
2. 어린 시절 많은 고통과 상처를 입고 자란 남자가 부부싸움을 하고서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고 이리 저리 궁리하면서 툭툭 치고 괜히 싱겁게 굽니다. 화해의 지름길은 아닙니다. (어느 성도님 사례)
3.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배우기까지 30 년이 걸렸습니다. 그 때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잘못 알아들은 어머니 말씀에 마법같이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4.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훈구 교수 저, 출판사 이야기) 이 책은 첫 페이지부터 아들이 부모를 살해한 패륜적 사건의 전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그가 법정에서 나오면서 통회하고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외친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향적이고 선입견이 있고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상대를 옥죄고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박이 반드시 마지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단순하고 선한 도구의 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안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것보다 신속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이것은 가장 적은 수고를 들이고 가장 큰 축복을 받게 하는 열쇠입니다. 어떤 때는 '사랑해'라는 말보다 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대가 미안하다고 용기를 내서 말할 때 '뭐가 미안한지 말해봐' 라든지, '아직 멀었어'라는 식의 반응은 상대와 상황을 또 다시 결박하게 됩니다. 그런 반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맺음>

마 18:18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푸는 것을 보십니다. 이 응답의 삶에는 사랑의 생명의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삶입니다. 2017 년 가정의 달에 '미안하다'는 진솔한 고백으로 서로의 결박을 풀어 주시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5 월 가정의 달이 왔습니다. 나는 평소에 가정, 직장, 교회의 세 영역에 대해 어떤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가정은 얼마만큼의 비중과 중요성을 갖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나는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2. 당신의 나의 굳어진 스타일(말, 행동, 습관)이 다른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결박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애써 보았습니까? 내가 터득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가족은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가장 투명한 거울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투명한 거울을 겸허히 들여다 보며 세월이 더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더 정직하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가정을 위해 결단하는 내용이 있다면 나누고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